



하멜린에서 부는 바람으로 세계를 흔들겠습니다

굳건한 팀워크로 혁신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액션 게임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 (주)하멜린(강대성 대표)은 게이머들로 하여금 게임의 환상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는 평과 함께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망 벤처기업이다.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의 배경인 하멜린 마을의 이름을 그대로 회사명에 인용해 게이머들을 게임 속으로 불러내는 하멜린의 매력을 느껴보자.

하멜린은 동화 피리 부는 사나이의 마법처럼 신비롭고 매력 있는 게임을 제작해 상상만으로 즐거운 게임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게임 제작 리소스 관리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엔진, 2D-3D 스프라이트 엔진, 액션 온라인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엔진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멜린.

창업 초기에는 자본, 공간, 인력 어느 하나 넉넉하지 못한 개발환경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도 했다. 당시 법인 설립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째실통과 의기투합했던 3인의 창업멤버가 하멜린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발 공간조차 없었다고. 게다가 빈약한 네임밸류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도 벤처기업으로는 힘든 시간임이 분명했다.

SVI와의 만남

이때 만난 것이 SVI다. 개발환경 개선을 위해서 회사 이전을 검토하던 중 입주 공고를 본 것인데 무엇보다 다양한 자료의 지원 및 조언, 기업 운용과 관련한 교육 등이 입주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 강 대표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지금의 하멜린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저희의 탄탄한 기술력과 이전부터 함께 근무한 팀원들의 열정적인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2002년 창업 당시를 떠올렸다.

현재 하멜린은 상용화된 윈드슬레이어(이하 윈드)의 꾸준한 업데이트와 올해 말 서비스 예정인 신규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언제나 전년도의 2배 성장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는 하멜린은 1년 단기 전략을 바탕으로 개발과 자본운용 계획을 중장기 전략으로 세우고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표는 “열정,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있는 것은 진흙 속에서도 빛이 나거든요. 저희 하멜린은 게이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와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게이머들이 찾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기본에 충실한 것은 당연하고요”라는 의지를 비쳤다.

게임개발은 곧 꿈의 실현

creative, play, study로 enjoy를 이끌겠다는 하멜린. 동시에 3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과 자본을 축적하고 다작을 중심으로 다양한 게임 제작과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멜린은 이를 ‘게임 개발이라기보다는 꿈과 즐거움 개발’이라 칭한다.

지난 2006년 이후! 게임을 통해 오픈서비스를 시작한 ‘윈드’는 하멜린에서 철저하게 기획된 대전 액션 게임이다. (주)하멜린의 강대성 대표의 전작 ‘강진축구’와 ‘수구리액션’ 등에서 보여준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대전하는 것이 윈드의 특징이다. 깔끔한 비주얼과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원래 10대의 와일드한 남성 유저와 함께 여성 유저층에게도 많은 어필하며 초반부터 게이머들의 관심을 받았던 윈드. 즐거움을 연구하고 창조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겠다는 하멜린 목표가 그대로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윈드의 핵심 개발진과 익사이팅한 게임을 만들겠다는 하멜린의 강한 의지가 유저들에게 무한한 놀이터를 제공하며 건전하고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에 매진하고 있는 하멜린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 본다.

www.hamelin.co.kr